

총체적 칭의론

(로마서 1~5 장)

김창세 선교사

목차

서론	4
바울 사도의 자기 소개 (1) (1:1-7)	5
바울 사도의 자기 소개 (2) (1:1-7)	9
로마 교회 (1:1-7)	13
하나님의 복음 (1) (1:1-7)	18
하나님의 복음 (2) (1:1-7)	21
하나님의 복음 (3) (1:1-7)	24
“이 복음” (1) (1:1-4)	27
“이 복음” (2) (1:1-4)	32
“이 복음” (3) (1:1-4)	36
“이 복음” (4) (1:1-4)	40
“이 복음” (5) (1:1-4)	46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1) (1:16-17)	50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2) (1:16-17)	54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3) (1:16-17)	58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4) (1:16-17)	62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5) (1:16-17)	66
총체적 칭의론 (1) (1:18-32, 3:23)	70
총체적 칭의론 (2) (2:1-16)	75
총체적 칭의론 (3) (2:17-3:8)	79
총체적 칭의론 (4) (3:9-20)	82
총체적 칭의론 (5) (3:21-26)	85
총체적 칭의론 (6) (3:21-26)	88
총체적 칭의론 (7) (3:21-26)	91
총체적 칭의론 (8) (3:19-26)	94
총체적 칭의론 (9) (3:21-26)	98

총체적 칭의론 (10) (3:21-26)	101
총체적 칭의론 (11) (3:21-26)	104
총체적 칭의론 (12) (3:21-31)	107
총체적 칭의론 (13) (3:21-31)	110
총체적 칭의론 (14) (3:21-31)	113
총체적 칭의론 (15) (3:21-31)	116
총체적 칭의론 (16) (4:1-8)	119
총체적 칭의론 (17) (4:9-12)	122
총체적 칭의론 (18) (4:9-17)	125
총체적 칭의론 (19) (4:17-25)	128
총체적 칭의론 (20) (5:1)	132
총체적 칭의론 (21) (5:2)	135
총체적 칭의론 (22) (5:2)	138
총체적 칭의론 (23) (5:3-4)	142
총체적 칭의론 (24) (5:5)	145
총체적 칭의론 (25) (5:6-8)	147
총체적 칭의론 (26) (5:8)	150
총체적 칭의론 (27) (5:8-10)	153
총체적 칭의론 (28) (5:8-11)	156
총체적 칭의론 (29) (5:12-21)	158
총체적 칭의론 (30) (5:12-21)	161
총체적 칭의론 (31) (5:12-21)	163
총체적 칭의론 (32) (5:12-21)	166
총체적 칭의론 (33) (5:12-21)	169
총체적 칭의론 (34) (5:12-21)	172
총체적 칭의론 (35) (5:12-21)	175

결론	177
-----------	-----

서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섭리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사랑하는 저의 아버님이시자 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세 선교사님이 grids도 알고 싶어하셔서 목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꾸준히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서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볼펜으로 백지에 적어내려 가고 또한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한국에 있는 조정아 자매의 도움을 받아 결국 김창세 선교사님의 평생 처음으로 두 권의 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로마서 5~8 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복음서)”를 출판해서 저희 교회 식구들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책 두 권을 출판하게 된 후에 아버님께서도 수요 예배 때마다 다시금 로마서 1 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로마서 1 장 18 절부터는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하실 것인지 저에게 물으셔서 의논가운데 “총체적 칭의론”이란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그 제목아래 로마서 5 장 21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선포하신 결과 이렇게 아버님의 세 번째 책인 “총체적 칭의론”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번에도 온라인 수요 예배 때마다 아버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설교 노트와 설교 말씀 목상 글을 타이핑하면서 조금이나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번에는 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롬 5:1; 참고: 롬 3:24; 갈 2:16)는 칭의(Justification by faith alone)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목상하는 와중에 이 총체적 칭의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조금이나마 깨닫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제임스 김 나눔

(2023 년 12 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 후)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 (1)

[로마서 1 장 1-7 절]

로마서에 대해서 예찬한 분들 중 한 분만 소개합니다. 그 분은 유도순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유도순 목사님은 로마서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신. 구약 66 권중 로마서를 잃었다면 복음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65 권을 잃었다 해도 로마서만 가졌다면 복음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 목사님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인터넷).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먼저 로마서에 대한 3 가지 질문입니다: (1)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 (2)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언제,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주후 56-57 년,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 3 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헬라(그리스)(행 20:1-2), 즉 아가야란 마게도냐의 남쪽 지방(롬 15:26; 살전 1:7)에 이르렀습니다(행 19:21).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한 3 개월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주후 56-57 년). (3) 로마 교회는 누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유월절이 지나서 50 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2:1-4) 오순절을 지키려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 중(5 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10 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4 절) 베드로 사도의 설교(14-36 절)를 듣고 마음에 찔려(37 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38, 41 절) 신도[“제자”(현대인의 성경)](41 절)가 되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그 로마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1, 5 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4 가지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 중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1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종”이란 노예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시민 중 1/3 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즉, 3 사람 중에 한 명은 노예였습니다. 왜 로마에 노예가 그렇게 많았는가 하면 로마 나라가 100 전 100 승하는 강대국이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패전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로마로 데려와서 노예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다니엘의 경우도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바벨론 나라에게 패전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단 1:1-6). 또한 빛을 많이 진 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열왕기하 4 장 1 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노예이면 자식들도 할 수 없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1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원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 장 3-5 절을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디모데전서 1 장 13 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랬던 사울(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 장 6-8 절을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사탄의 종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8-10 절을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결코 그는 로마 나라의 노예들처럼 마지못해 또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긴 것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고전 15:8-10,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은혜의 의식이 강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주님의 일)를 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공로의식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눅 17:10, 현대인의 성경)[(개역개정)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셔도 감사, 천하게 사용해 주셔도 감사해야지 결코 주님께 항의해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9 장 20-2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또한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의 주님의 종임을 명심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1 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 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 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새 찬송가 549 장 “내 주여 뜻대로” 1 절과 3 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 장 7-8 절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살아서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정도로(행 20:24)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도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은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빌 1:20-21). 바울 사도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23-24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고 그리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셔서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마 25:19)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았던 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 (2)

[로마서 1 장 1-7 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 장 1 절과 5 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 이 4 가지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 중 지난 주 수요일예배 때 첫 번째로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외에 나머지 3 가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1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주님께 바울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빌 3:6; 딤후 1:13). 사도행전 7 장 55 절부터 보면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했을 때(55-56 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51 절)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거짓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57-58 절). 그 때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8:1).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 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고 번역했습니다(3 절). 사도행전 9 장 1-2 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 장 3-6 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한 사도행전 9 장 15-16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 장 8 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셋째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1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로마서 1 장 2-4 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할 것입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1 절)라는 말씀은 구별하고 따로 세움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 장 15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1 장 15 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교사로 섬겼습니다.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행 7 장)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8:1).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11:19-21).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고, 바나바가 사울(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 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22, 25-26 절).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따로 세움을 받아 안수를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 장 1-3 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제 1 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4 절)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복음)을 전했습니다(5 절).

마지막 넷째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 1 장 5 절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5 절). 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현대인의 성경)](5 절). 여기서 “믿어”와 “순종”[“믿고 순종”(현대인의 성경)]을 생각할 때 이 믿음에는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 장 26 절을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과연 우리의 믿음은 행함(순종)이 있는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는 자기는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2)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3)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요(롬 1:1),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입니다(5 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5 장 16 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은 사람인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15 장 19 절을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새 찬송가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3 절 가사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도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행 16:6-7, 현대인의 성경) 드로아에서(8 절) 밤에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인도함을 받아(9-10 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12 절)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렀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12-13 절). 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14 절). 그 결과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15 절).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현재 알바니아로서 마게도냐에서 더 서쪽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지 못할지라도(롬 15:19),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새 찬송가 511 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2-3 절 가사입니다: (2 절) 멀리 가서 이방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네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들다해 전하세, (3 절)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말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로마 교회

[로마서 1 장 1-7 절]

로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외에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 편지를 받는 지방의 이름과 “교회”라는 말씀이 기록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 장 2 절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 장 2 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 장 1 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과 데살로니가후서 1 장 1 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 장 2 절을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집”이란 “빌레몬”(1 절)의 집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빌레몬 교회’를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비록 이 편지들처럼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로마에도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주 모양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고 김영익 목사님은 교회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김영익). 다시 말하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김영익). 또 다른 이는 교회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로마에 참신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6-7 절을 보면 “부르심”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누가 부르셨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였습니다(7 절). 이렇게 로마에 있는 참 심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대해 3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6 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 장 1-2 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현대인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고 사탄의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것이었을 때 우리는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 된 짓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 장 4-6 절을 보십시오: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것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찬송가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절과 후렴 가사입니다: (1 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 제일 잘 아시기에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7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 로마 시에 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6 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7 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 4:8, 16) “…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이 하나님의 사랑을 3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 장 5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 장 8 절과 10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4 장 9-10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 심령의 평화가 있고 또한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공동체)이었습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이란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 38-39 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 셋째로, 로마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7 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성도”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와 사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 장 16 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롬 1:6).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7 절).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의 모임입니다(7 절).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간의 교제를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 장 25 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현대인의 성경)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시다.” 또한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8 장 1, 4-5 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발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음으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발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1 장 19-21 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한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흠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1)

[로마서 1 장 1-7 절]

지난 주 “로마 교회”에 대한 복습입니다. 비록 로마서에 “로마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로마 지방에 로마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는 편지를 받는 지방의 이름과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예를 들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갈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전 1:2; 고후 1:1),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살전 1:1; 살후 1:1)] 로마 지방에 쓴 편지인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 장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5 번이나 나옵니다(롬 16:4, 5, 16, 23). 그러나 여기서 “교회”라는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로마 지방에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로서(‘부르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1 장 6, 7 절에 두 번 나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6 절)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7 절). 이들은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바로 로마 교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7 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5:5).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 절).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10 절).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사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요일 4:10).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로마 교회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하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롬 3:25, 현대인의 성경).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일 3:1, 2)와 “하나님의 상속자”(롬 8:17)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1:7)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희도”(6 절)와 “로마에서”(7 절)란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1 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그 후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할 것임).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164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 장이 23 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 장에는 3 번으로 제일 적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묵상할 수가 없고 제일 적게 나오는 로마서 16 장 말씀 중심으로 3 번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평강의 하나님”(롬 16:20), (2) “영원하신 하나님”(26 절), (3) “지혜로우신 하나님”(27 절).

오늘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다음 주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 장 20 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란 원어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평안,” “화평,” “평화,” “안전,” “화친,” “화목,” “태평” 등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조하는 자(계 12:10) “사탄”(롬 16:20)은 어떻게 하든지 갈라놓고 분열시키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0 절). 여기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원복음(the original gospel)인 창세기 3 장 15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요 19:30) 죽으시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히 2:14). 주님께서서는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 못에 던지사 그곳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계 20:10).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후에 마귀는 그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 못에 던지시사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롬 16:20)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언제나 경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벧전 4:7).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습니다(고전 7:15).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롬 1:6) 또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7 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14:19).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마 5:9)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약 3:18). 우리는 이웃과도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살후 3:1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복음 (2)

[로마서 1 장 1-7 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 장 말씀 중심으로 3 번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 중에 있는데 지난 주에 첫째로 “평강의 하나님”(20 절)에 대해서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26 절)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 증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 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13 절). 그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였습니다(14 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처럼 시작(생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 장 1 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 장 1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 1 장 1 절의 “태초”는 중국 성경에는 “기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 장 1 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인

“태초”(시작)이 아니라 그 이 전을 가리킵니다. 즉,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1 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3 절).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성자 예수님도 가지셨습니다(3 절).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 장 14 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이전에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난 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 장 5 절을 보십시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시편 90 편 2 절을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6 편 1-26 절을 보면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현대인의 성경)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영원합니다. 신명기 5 장 29 절을 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팔이 영원합니다. 신명기 33 장 27 절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6 장 26 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복음”(26 절), 즉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25 절) 우리의 믿음을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26 절). 로마서 4 장 20 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나의 복음”(25 절), “이 복음”(26 절)이란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바울에게 맡기신 사도 바울의 복음이요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25 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 장 23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롬 16:25)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26 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시대 때에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강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강생하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26 절).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더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비한 계시”(26 절)는 구약 때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신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므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 장 69 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 장 3 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새 찬송가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1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절)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복음 (3)

[로마서 1 장 1-7 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 장 말씀 중심으로 3 번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미 “평강의 하나님”(롬 16:20)과 “영원하신 하나님”(26 절)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27 절)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롬 11:33),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고 무사할 수 있겠느냐?”](욥 9:4).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 편 24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현대인의 성경) “여호와여, 주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의 피조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천지창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중에서 단 하나의 별도 우리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을 다 지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런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새창조도 하셨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 장 4 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8 장 29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랑하신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말라기 1 장 2-3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택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형(에서)가 동생(야곱)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롬 9:11,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14-16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디도서 1 장 2 절을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 장 9-10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로마서 16 장 25-27 절은 송영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송영을 합니다. 이 송영 말씀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란 말씀은 26 절에 나오지 않고 25 절에 나옵니다. 그 의미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26 절) “지혜로우신 하나님”(27 절)으로서 우리의 믿음(25 절, 현대인의 성경)을 견고하게(강하게) 하십니다(26 절). 여기서 “이 복음”(26 절)이란 “나의 복음”(25 절)으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갈 1:7 상) “다른 복음은 없나니 …”].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25 절, 현대인의 성경)인 “이 복음”(26 절), “나의 복음”(25 절)을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게 하셨습니다(26 절). 전에는(구약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관해서”(25 절, 현대인의 성경)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조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셔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결국에는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26 절).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습니다(26 절). 즉,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딤후 1:10).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다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역사하시되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이 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이제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복음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딤후 1:10,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시므로(롬 16:26)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27 절).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영생에 이르러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복음” (1)

[로마서 1 장 1-4 절]

로마서 1 장 2 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3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 장 1 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164 번이나 나오지만 원어인 헬라어로는 153 번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 장 2 절에 한국어 성경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 문장이 “프로에펩게일라토”(προεπηγγειλατο)라는 한 단어로서 그 의미는 ‘그가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지만 한국어 성경은 “그”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로마서 1 장 2 절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헬라어 성경보다 하나가 더 많은 164 번 나옵니다. 로마서 1 장 2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1 절)으로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로마서 16 장 말씀 중심으로 이미 3 가지로 묵상했는데 이 3 가지 “하나님”(16:20, 26, 27)과 “하나님의 복음”(1:1)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복음”(1:1)에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16:20).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는데(20 절) 여기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원복음(the original gospel)인 창세기 3 장 15 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원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9:30)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시 29:11). 그 “평강의 복”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롬 5:10) “평강의 왕”(사 9:6)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목 제물(요일 2:2; 4:10)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롬 5:10)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된 것을 소멸하시사(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이 둘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엡 2:15-16,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고(롬 15:33; 고후 13:11),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골 3:15),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빌 4:7).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우리는 이 평강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골 1:6) 이 평강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막 1:14; 눅 8:1; 행 14:15, 16:10, 20:24; 고후 11:7; 살전 2:2, 8, 9) 우리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전파돼야 합니다(골 1:6, 현대인의 성경).

(2) “하나님의 복음”(롬 1:1)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16:26).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 3:14).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없으십니다(참고: 히 7:3). 하나님은 창조이전에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난 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 편 2 절을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현대인의 성경)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롬 16:20)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시 136:1-20) 우리를 사랑하시되(렘 31:3) 창세전(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엡 1:4)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사[참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롬 8:29)]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신 5:29) 그 영원한 복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요 1:1) 영원한 생명이신(요일 1:2)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고(엡 2:1, 현대인의 성경)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요 3:16)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롬 6:23).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시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히 5:9)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냄을 받아(히 13:20)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영원한 구원”(사 45:17)을 얻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벧후 1:11, 참고: 시 145:13)로 옮겨져(골 1:13) “영원한 기업”(창 17:8)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므로(마 22:39)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계 14:6)을 전파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복음”(롬 1:1)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16:27).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것(롬 8:29),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뿐만 아니라(엡 1:4)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되(4 절) 그보다 더 앞서서 영원 전에[하나님은 영원 전에 미리 아신 자들/사랑하시는 자들(롬 8:29)]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한된 우리 사람의 지혜로우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참고: 욥 34:2)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주시길 간구하면서(엡 1:8)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잠 8 장)가 행하신 일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시 107:43) 알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엡 5:15)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마 24:46)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므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단 12:3).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고(고전 1:21)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고전 1:24)를 삶과 입술로 전파하십시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롬 16:27).

“이 복음”(1:2)은 “하나님의 복음”(1 절)으로서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평강의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튼튼하게/강하게 하십니다(16:26)[흥미로운 점: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1 장 1 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2 절에서 “이 복음”을 말한 후 편지 끝부분인 16 장 26 절에서 또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였음(inclusio)(샌드위치 법).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이 복음”인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1:2; 16:26)인 “하나님의 복음”(1:1)이요, 평강의 하나님의 복음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복음이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2 절)은 “그의 아들”(2 절)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2 절) 즉,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4:33, 16:16, 27:43, 54; 막 1:1, 3:11, 5:7, 15:39; 눅 1:35, 8:28; 요 1:34, 49, 11:4, 27; 행 9:20; 롬 1:4; 고전 1:9; 고후 1:19; 히 4:14; 요일 4:15, 5:20; 계 2:18, 등등).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마 5:9; 롬 8:14; 갈 3:26; 4:6, 7; 히 12:7, 등등) 실제로 우리는 “양자”입니다(롬 8:15, 23, 9:4).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기에(8:29)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히 2:11,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막 14:36) 우리도 양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롬 8:16-17)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8:15; 갈 4:6).

“이 복음”(롬 1:2)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직 성자 예수님에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2 장을 보면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8, 10 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10-11 절). 이 말씀을 보면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이 복음”(롬 1:2)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눅 2:11).

마지막 셋째로, “이 복음”(롬 1:2)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2 절).

로마서 1 장 2 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모세(신 8:15)를 통하여 창세기 3 장 15 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인해 죄의 영향을 받아 부패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복음(the original gospel)인 창세기 3 장 15 절을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 장 2 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 3 장 15 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53 장 4 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말라기 4 장 2 절에서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서 “공의로운 해”란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렬한 빛을 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되십니다(칼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 장 39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누가복음 24 장 44 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신약 성경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롬 1:2)은 “하나님의 복음”(1 절)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요(눅 2:11),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롬 1:2).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행 16:3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생의 복을 받아 영생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신적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2)

[로마서 1 장 1-4 절]

“이 복음”(롬 1:2)의 기원/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164 번이나 나오지만 원어인 헬라어로는 153 번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 장 2 절에 한국어 성경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 문장이 “프로에핑게일라토”(προεπηγγείλατο)라는 한 단어로서 그 의미는 ‘그가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지만 한국어 성경은 “그”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로마서 1 장 2 절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헬라어 성경보다 하나가 더 많은 164 번 나옵니다.

“이 복음”(2 절)은 “하나님의 복음”(1 절)으로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로마서 16 장 25-27 절을 보면 3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롬 16:26).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 3:14). 하나님은 창조이전에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난 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느 9:5; 시 90:2).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시 136:1-26)과 하나님의 복(신 5:29)과 하나님의 팔(33:27)은 영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롬 16:27).

로마서 16 장 25-27 절은 송영인데 이 송영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7 절). 그런데 또 다른 송영인 로마서 11 장 33 절에서도 성경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시 104:24)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새 창조도 하셨습니다. 즉,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엡 2:1)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고후 5:17).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사랑하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사 또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롬 8:29-30; 엡 1: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딤후 1:2).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롬 16:26).

한국 성경은 로마서 16 장 26 절이지만 원어 헬라어를 보면 25 절입니다: “...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은 “이 복음”(1:2; 16:26), 즉 “하나님의 복음”(1:1)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되(4:2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고전 1:8).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송영을 해야 합니다(롬 16:27).

“이 복음”(롬 1:2)의 내용이신 “그의 아들”(2 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 장 2 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은 누구이신지 3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의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즉, “그의 아들”은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외아들”이란 하나뿐인

아들이란 의미보다 독생자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 장 2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켜 “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여 낳은 아들입니다[(16: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 육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175 세에 죽었을 때에도(25:7)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9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 장 2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독자”란 히브리서 11 장 17 절 개역한글판을 보면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약속을 받은 자”였기에 그를 가리켜 “독자” 또는 “독생자”, 즉 ‘독특한 아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 장 23, 28 절 말씀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둘째로, “그의 아들”(롬 1:2)이신 예수님은 “독생자”, 즉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 장 1-3 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아들”은 독특하게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에서 “생”이란 ‘태어나다’, ‘낳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특하게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은 골로새서 1 장 15 절 말씀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먼저 나신 이”라는 말씀은 그 이단들의 주장으로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단들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그 아들”(14 절)]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그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에서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특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 장 6 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롬 1:2)은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 장 9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의 아들”(롬 1:2)이신 독생자는 독특한 분이시요,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독생자 예수님께서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야 합니다(빌 2:12). 우리는 항상 독생성자 주님을 경외하므로 그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되 우리는 우리의 구원(영원한 생명)을 이뤄야 합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요약 적용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 22:37-39).

“이 복음” (3)

[로마서 1 장 1-4 절]

“이 복음”(롬 1:2)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습니다(3 절). 이 말씀 중심으로 4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의 아들”입니다(롬 1:3).

여기서 “그의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즉, “그의 아들”은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 1:14, 18)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3:16, 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4 장 9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2 장 2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독자”란 히브리서 11 장 17 절 개역한글 성경을 보면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어느 정도로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요 1:1-3). “그의 아들”(롬 1:3)은 독특하게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입니다(골 1:15).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16-17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고 우리를 이 아들의 피 흘린 대가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13-14 절). “그의 아들”(롬 1:3)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빌 2:6)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육신으로는”입니다(롬 1:3).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 장 14 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육신”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143 번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 장 3 절부터 “육신”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육신”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랄 수도 없”습니다(7 절).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6 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8 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육신”이 되셨다(1:3)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신”이란 로마서 8 장 6-8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처럼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 아닌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다른 뜻이란 죄와 관계가 없는 “육신”으로서 예를 들어 사람의 “연약함”을 뜻합니다. 로마서 6 장 19 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 이 “육신”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 몸에 손과 발과 머리 등등이 있는 것처럼). 그 전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의 육신은 그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육신은 그 모든 지체가 “의에게 종”이 되어(6:18)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9 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22 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이 연약하셔서 광야에서 40 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몹시 시장”하셨습니다(마 4:1-2, 현대인의 성경). “독생자” 예수님의 “육신”은 비록 연약한 육신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육신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이었습니다(요 1:14). 그 분은 온전한 하나님이 시요 온전한 분이십니다.

셋째로, “다윗의 혈통”입니다(롬 1:3).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 장 1-16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1 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누가복음 3 장 23-38 절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 장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23 절) 올라가면서 “하나님”으로 끝나지만(38 절) 마태복음 1 장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1 절) “요셉”으로 끝납니다(16 절). 마태복음 1 장의 족보는 요셉 계통의 족보로서 그 조상이 다윗인데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밋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 절). 그런데 누가복음 3 장 31 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나 “나단”이나 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밋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들입니다. 실제로 4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 장 5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암미엘의 딸이었던 밋세바에게서 난 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양부(법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솔로몬의 계통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통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나셨고”입니다(롬 1:3).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께서 어떻게 사람의 아들(인자)인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 장 9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많고 죄의 형벌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 장 4 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하신 때(참고: 2 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기 아들(독생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 장 6-7 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독생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 장 18 절과 20 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독생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 장 35 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죄가 있는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참고: 시 51:5)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덮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므로 그녀의 죄성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에 있어서 죄악 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 일만에 부활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 (1 절)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 주시네
- (2 절)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므로 힘써서 전하세
- (3 절)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중에 나 부를 새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 (후렴)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새 찬송가 497 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이 복음” (4)

[로마서 1 장 1-4 절]

“이 복음”(롬 1:2), 즉 “하나님의 복음”(1 절)이란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는 지난 주 수요일 예배 때 “이 복음”(3)이란 제목 아래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4)이란 제목 아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 번에 “이 복음”(5)이란 제목 아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2 절), 즉 “하나님의 복음”(1 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 장 4 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분명한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 장 4 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전 15:35)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36 절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15 장 52 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52 절, 현대인의 성경)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2 절). 그 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 즉 “살아남은 자들”(살전 4:17)은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2,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빌 3:21,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나심의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0 장 45 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죽음의 죄의 값입니다. 즉, 사람이 (질병으로 죽든 굶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죽는 것은 죄의 값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 장 23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현대인의 성경)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 이것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 장 17 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자가 가장 간교한 뱀(3:1)의 유혹에 넘어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으므로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6 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므로 범죄한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2:17). 이렇게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만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을 것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심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 장 35 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께서 죄인인 마리아를 덮으시므로 마리아의 죄가 아기 예수님에게 마치지 않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 년 사시는 동안 우리처럼 사탄의 시험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기셔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 장 15 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죄의 값이 죽음인데 이렇게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 장 10 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죄인 되었고(롬 5:8)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10 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화목제물이 있어야 했는데 사랑의 성부 하나님께서(요일 4:8, 16)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10 절). 이사야 53 장 6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시되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 장 32 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 번이나 선포하고 석방하려고 노력하였었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2)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으로서는 화목제물을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 장 17-18 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숨을 버릴 권세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 장 16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1 장 4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3)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 장 14 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탄생)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의 33 년 인생도 성령 충만하셨으며, 사탄의 모든 시험도 성령충만하시사 이기셨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인데 우리가 죽은 것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 장 14 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 장 1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장 33-34 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피)의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2)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 장 59-60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3-15 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 때 잠이든 성도에게 “안녕히 가십시오”(Good bye)라고 말하지 않고 “안녕히 주무십시오”(Good night)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고전 15:52, 현대인의 성경) 즉,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살전 4:16, 현대인의 성경) 잠든 성도가 다시 깰 것(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우리의 죽음은 천국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행악자들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매달렸습니다(눅 23:33, 현대인의 성경).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한 후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39-4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43 절).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이요 또한 천국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 장 14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인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우리의 죄의 몸, 즉 옛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 장 6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육체(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옛 사람이 죽었기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엡 2:1, 현대인의 성경)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고후 5:17).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롬 1:1)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2 절)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복덴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젠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이요 또한 천국 관문을 통과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새 찬송가 149 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1 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 절)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 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3 절) 못 박힌 손 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4 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젠 우리 옛 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므로 새사람 답게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빌 1:27) “이 복음”(롬 1:2), “하나님의 복음”(1 절)을 전해야 합니다. 새 찬송가 497 장 “주 예수 넓은 사랑”입니다: (1 절)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쁨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 주시네, (2 절)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므로 힘써서 전하세, (3 절)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후렴)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복음” (5)

[로마서 1 장 1-4 절]

“이 복음”(롬 1:2), 즉 “하나님의 복음”(1 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로마서 1 장 4 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부활하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사람 혹은 저 사람 혹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 사람이 있지만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승천한 사람은 있어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빈무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빈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해져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마 28:2). 그 이유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5-6 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요 20:19). 이렇게 예수님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시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돌문이 꼭 닫혀 있었어도 부활하사 그 돌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머리를 썼던 수건은 몸을 싼던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7 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적어도 3 번이나 나타나셨고, 또한 500 명이나 되는 회중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고전 15:5-6).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8 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마가도 마가복음 16 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고, 누가는 누가복음 24 장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21 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망(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 장 24 절과 32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장사지낸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3 장 15 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0 장 17-18 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22:25).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다시 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1 장 4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 여기서 “성결의 영”이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 장 11 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장사 지낸바 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1 장 4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잠자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20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1) 우리가 중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 장 3 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중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중생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중생한 영혼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죽은 몸(육체)도 부활하여 중생한 영혼과 연합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우리가 의롭다 함(칭의)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 장 25 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58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 장 12 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마태복음 10 장 42 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롬 1:2)이 “하나님의 복음”(1 절)이요 참 복음입니다.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2 절). 그 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3 절). 그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했습니다(눅 2:10-11). 또한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이란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롬 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4 절).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서 목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30 년을 사시다가 30 세 때 공생애 3 년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4 절).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능력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4 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길 기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1)

[로마서 1 장 16-17 절]

로마서 1 장 16-17 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 장 16-17 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 장 1-15 절은 이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 장 18-끝장 끝절까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 장 16-17 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 말씀 중 로마서 1 장 16 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에는 “구원론”이 있으며 그 구원론에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서정”이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지 구원의 순서를 말합니다. 로마서 8 장 30 절을 보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은 ‘예정/선택하셨다’는 뜻이고, ‘부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으로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효적인 부르심’(혹은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은 칭의를 말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은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8 장 30 절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4 단계만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신학교에는 10 가지를 말합니다: (1) 예정, (2) 소명(부르심), (3) 종생, (4) 믿음, (5) 칭의, (6) 회개, (7) 양자됨, (8) 성화, (9)

견인, (10) 영화. 이 10 가지를 함축해서 한 3 단계로 나뉘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먼저 과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 구원’을 생각할 때 주로 ‘칭의’를 많이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생과 양자됨(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 구원입니다. 여기서부터 현재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생했으면 중생한 즉시 현재 구원을 이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칭의)을 얻었으면 의롭다 함을 얻은 즉시 현재 구원을 이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양자됨) 그러면 즉시 현재 구원을 이뤄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과거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다,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과거 구원을 받았다(중생 얻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힘을 얻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함(칭의)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이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과거 구원인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 장 1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과거 구원인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 장 11 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 장 16 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 장 11 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미 과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시 현재 구원을 이뤄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 장 12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항상 …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현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 장 17 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현재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 장 1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1 장 9-10 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2 장 13 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현재 구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성화되어서 현재 구원을 이뤄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미래 구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누릴 구원은 영광입니다. 로마서 8 장 30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 장 23 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과거 구원은 우리 영혼이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구원은 이 몸도 속량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54 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미래 구원으로서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 몸의 속량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 장 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의 미래 구원은 우리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이 속량을 받아야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 장 21 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미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2 장 22-23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란 영화된 영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 장 27 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 구원을 얻을 때 교회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 장 6 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 장 21 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인 승리자, 곧 영광스럽게 된 자에게는 주님(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로마서 10 장 9 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과거 구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해 놓으신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구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느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2)

[로마서 1 장 16-17 절]

로마서 1 장 16 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에서 “이 복음은 …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또는 엄청난 힘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 구약 성경의 요절이라 하면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창 5 장). 창세기 5 장 5 절 말씀입니다: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영원한 불 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 장 16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능력입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화평/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과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 장 29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랑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 장 3-5 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 장 30 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 장 9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중생케) 하셨습니다. 디도서 3 장 5 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새롭게 하셨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칭의). 로마서 8 장 30 절 말씀입니다: “…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 로마서 5 장 9 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 장 10 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과거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옛 생활에서 새생활로, 죄악 중에서 살던 그 악한 생활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활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는 것, 즉 현재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 장 12-13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새 찬송가 213 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1 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 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3 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4 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5 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현재 구원을 이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 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는 거짓되게

요술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술사 시몬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거짓된 요술쟁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8 장 9-11 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 8 장 12-13 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은 영화요 요한복음 3 장 16 절로 말씀한다면 영생입니다. 로마서 8 장 30 절 말씀입니다: “...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6 장 19-31 절을 보면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비유를 봅니다. 누가복음 16 장 24 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23 절)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했는데(24 절) 이것은 멸망 중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23 절) 복락을 누립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보면 ‘복된 소리’ 또는 ‘복스러운 음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만이 아니고(그것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13 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 장 12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 장 17 절 말씀입니다: “...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새 찬송가 499 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입니다: (1 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2 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을 쇠사슬을 끊어라 (3 절)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4 절) 온 천하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후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3)

[로마서 1 장 16-17 절]

로마서 1 장 16 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은 “모든 믿는 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믿음은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손’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통로다 라는 표현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통로는 오고 갈 수 있는 길인데 믿음은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도관’이다 라는 표현이 바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도관이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돕는 파이프(pipe)입니다. 그 파이프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물이 다시 올라가게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런 장치가 없는 이상 물은 내려가지 결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라’는 표현은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 장 37 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오는 자’란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을 ‘먹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 장 57 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 즉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시는 것’이란 표현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 장 14 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믿음을 4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한 예로 요한복음 3 장 1-2 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라 하는 관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6 장 27-28 절에 나오는 아그립바 왕도 성경과 선지자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으로만 알았지 믿지 않았었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성경은 이러한 지식적인 신앙을 귀신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 장 19 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가복음 4 장 33-34 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있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적/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적적으로 낫는 줄 믿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4 장 8-10 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세계 전도를 나갔을 때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했었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이적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믿음으로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면 아니 됩니다. 육신의 몸만 치유 받은 이적을 믿는 믿음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영의 병도 치유 받는, 즉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 장 11-19 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10 명의 나병환자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적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 명 중 이방인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어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19 절). 즉, 이 사람은 병 낫는 기적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잠깐만 믿다가 안 믿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 장 13 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 장 20-22 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신앙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 가지고서는 중단하차 할 것이기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구원 얻는 믿음(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 장 39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영혼은 구원함에 이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 장 5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 장 10 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사 우리로 반드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요 3:16). 요한복음 14 장 6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새 찬송가 544 장 “울어도 못하네”입니다: (1 절)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겹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 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3 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4 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삼을 얻게 (후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든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 장 8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 장 7 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 장 14-1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 받을 사람에게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4)

[로마서 1 장 16-17 절]

로마서 1 장 17 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6 번 나옵니다[롬 1:17; 3:5, 21, 22; 10:4(2 번 나옴)]. 그러나 이 모든 6 번의 “하나님의 의”가 다 같은 뜻으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크게 2 가지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속성)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 장 5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속성)인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 장 8, 16 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벌)하셔야 했습니다[예, 노아의 홍수(창 6:5-7ff)].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 장 21-22 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 장 17 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 장 17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 장 5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속성)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주장하지만(예를 들어, 루터가 그랬었음) 그게 아니고 로마서 3 장 21-22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음).

칭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6 장 5-7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홍수로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죄 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멸망 받았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 장 24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무조건,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 장 7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값을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 장 21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시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5 장 17-19 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인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정죄에 이르고 사망이 왕 노릇하였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 장 16 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 장 9 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현대인의 성경)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칭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빌 3:9). 로마서 8 장 30 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 장 30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 장 11 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시다”]. 이 칭의라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며,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칭의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로마서 5 장 1-4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롬 5:8, 10).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힘써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5)

[로마서 1 장 16-17 절]

로마서 1 장 17 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도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설입니다. … 하나님의 의가 직접 임하면 심판이고 십자가를 통해 임하면 칭의가 됩니다’(인터넷). 알버트 반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 장 5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정하고 거룩한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 로마서 3 장 21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사실(칭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반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70 문답입니다. 문: “의롭다 하심(칭의)이란 무엇인가?” 답: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도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답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칭의에 대한 좀 더 큰 확신을 가지므로 말미암아 칭의에 대한 결과 또는 축복을 좀 더 충만히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로마서 3 장 22 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3 장 24-25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미 과거에 지은 모든 죄나, 현재에 범하고 있는 죄나,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었습니다. 여기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 장 21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3 장 5 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 장 7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어떤 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디도서 3 장 7 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곧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 장 17-19 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었습니다.

이 칭의(의롭다 하심)는 믿음이란 손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결과 또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1) 첫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 장 1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칭의(의롭다 하심)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 칭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 장 10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 둘째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 장 2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 장 12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 장 16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가복음 18 장 9-14 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11-12 절).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13 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9 절)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14 절).

(3) 셋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 장 2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3: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5:1-2).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4) 넷째 축복은,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로마서 5 장 3 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사도행전 14 장 22 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 함(칭의)을 얻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롬 5:3)는 하늘에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 장 11-12 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리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는 옥중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8).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롬 1:17). 하나님의 의는 감추어졌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비밀이었기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그 비밀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장 9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알아가므로 칭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칭의의 결과, 즉 칭의 받은 사람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칭의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우리는 그 칭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워 칭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므로 그 칭의의 축복을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1)

[로마서 1 장 18-32 절, 3 장 23 절]

오늘부터 총체적 칭의론에 대해서 묵상하고 합니다. 이 대주제인 “총체적 칭의론”에 소주제가 9 가지가 있습니다: (1) 칭의의 필요성, (2) 칭의의 창시자, (3) 칭의의 근거, (4) 칭의의 도관(방법), (5) 칭의의 보편성, (6) 칭의의 목적, (7) 칭의의 예증, (8) 칭의의 결과, (9) 칭의의 확증.

첫째로,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 장 23 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인류의 첫 사람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모든 사람”을 한 4 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1) 이방 사람들 (1:18-32), (2)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2:1-16), (3) 유대인들 (2:17-3:8), (4) 온 인류 (3:9ff.).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3:23). 로마서 5 장 12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3:6).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므로 그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5:12). 그 말씀의 의미는 아담의 죄악은 유전을 통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책만 전가를 통해 모든 사람의 것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본성의 타락과 부패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옮겨진 것입니다(원죄). 심지어 유아들은 어떤 법도 어길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유아들도 “모든 사람”(롬 5:12)에게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죄가 유아들에게도 다 전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시 51:5)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3 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였으므로, 그들로부터 일반적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轉嫁)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전달되었다”(인터넷).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롬 5:12)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야 칭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또한 칭의론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 않으면서 “죄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죄인”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칭의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 칭해주신 칭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죄”의 많음과 크기와 깊음과 높음을 깨닫지 못하면 못할 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크기와 깊음과 높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 장 20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현대인의 성경)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많음과 크기와 깊음과 높음을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 장 18-19 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롬 3:23)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방 사람들의 죄(1:18-32)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합니다(변명할 수가 없음).

로마서 1 장 20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현대인의 성경) “...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고, 복음도 들은 적이 없고 등등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들은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만하도록 하셨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만물을 통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 장 19-20 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distorted)되어서 좀 희미해졌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창 1:14-18)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하셨습니다(20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2) 이방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로마서 1 장 21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야고보서 4 장 17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생각은 허망하였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에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 문과 답입니다: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죄를 범했습니다.

(3) 이방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로마서 1 장 2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긴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22 절, 현대인의 성경).

(4) 이방 사람들은 동성애의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1 장 26-27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동성애(동성 결혼)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한 남자와 또 다른 한 남자가 결혼하고, 한 여자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27 절), “마땅한 대가”(27 절, 현대인의 성경)를 받았는데 그 예로 창세기 18-19 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향과 불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19:24-25).

(5) 이방 사람들은 21 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1 장 29-31 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28 절). 그 결과 21 가지의 죄를 범했는데 이러한 21 가지의 죄에 해당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였습니다(32 절).

이러한 죄를 하나도 안 범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칭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칭의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 값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은 사람들도 죄를 범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반드시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총체적 칭의론 (2)

[로마서 2 장 1-16 절]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첫 번째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 장 23 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인류의 첫 사람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모든 사람”을 한 4 가지로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 예배 때 첫째로 죄를 범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 장 18-32 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죄를 범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2 장 1-16 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 장 1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성경에 남을 판단한 사람의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 장 9-14 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9 절)으로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10 절) 바리새인은 서서 세리와 따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11-12 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세리를 판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판단한 원인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고 믿고 있어서(10 절)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14 절). 그래서 그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11 절)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일 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고 있습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추구하는 자기의 본능적인 “이기심”(selfishness)에 충실하여 결국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self-glory)하며 “자아-숭배”(self-idolatry)를 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7 장 3-4 절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는 자기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보기에 빼낼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티만 보이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5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눈 속의 들보를 빼는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 기도하지 않고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데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 형제를 판단하므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제의 눈 속에서 들보를 보고 우리 눈 속에는 티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2 장 1-16 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1 절)이 범하는 3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 장 1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는 예가 바로 로마서 2 장 21-22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예를 들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5 장 27-28 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장 27-28 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았습니다(마 23:3).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2 절) 문제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바리새인의 유전까지 첨부하여[“무거운 짐”(4 절), 박윤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치

아니했습니다[참고: 막 7:1-13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렸음)]. 그들이 이렇게 외식하게 된 원인은 물론 그들의 교만이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외식하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롬 2:21).

둘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 장 4 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심판하시사 그의 물질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또한 건강도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만일 그가 남을 계속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질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면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베푸시사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회개치 않고(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4 절).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 장 25-26 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23 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 가운데 형벌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25 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된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기셨습니다(사 53:11,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롬 3:26).

셋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 장 5 절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현대인의 성경)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고집에 세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십니다(2 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완전한 심판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비록 이 세상에서는 피할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5 절) 날에 남을 판단한 죄가 다 드러나고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칭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롬 2:2)들도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적어도 3 가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같은 일”을 행하는 죄(2 절)와 (2)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죄(4 절)와 (3) 고집이 세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5 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칭의가 꼭 필요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3)

[로마서 2 장 17 절 – 3 장 8 절]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첫 번째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 장 23 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인류의 첫 사람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모든 사람”을 한 4 가지로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이미 첫째로 죄를 범한 이방 사람들(1:18-32)과 둘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2:1-16)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매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셋째로 “유대인”들(2:17)에 대해서 로마서 2 장 17 절-3 장 8 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유대인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좋은(나은) 점들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 장 1-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 모로 많이 있습니다. ….” (1)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2 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유대인들의 나은점은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습니다(2:17).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십계명 및 모세 5 경)을 말합니다. (2)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17 절). 즉,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족임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유대인에 대해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리브라에게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12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12 아들들 중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대였습니다. 여기서 “유대”란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입니다(창 29:35;

49:8).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12 지파를 이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에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10 지파), 남쪽 유다(2지파인 유다와 베냐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우상을 섬기므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 나라를 통해 징계하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유다 나라가 다시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다 나라가 로마 나라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3)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롬 2:18). 그들은 8살때부터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4)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18 절).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5) 유대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습니다(18 절). 그들은 율법을 배우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6) 유대인들은 “맹인”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의 “인도하는 자”요 그들의 “빛”이었습니다(19 절). (7)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자”요 “어린 아이”인 이방인의 “교사”요 “선생”이었습니다(20 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나은)들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1)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자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2 장 21 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2)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2 장 21-22 절 말씀입니다: “...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3)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2 장 23 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현대인의 성경)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4)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2 장 24 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좋은(나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3:23). 그러기에 유대인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둠에 있는 영적 시각 장애인들의 선생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데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가르침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 장 13-16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총체적 칭의론 (4)

[로마서 3 장 9-20 절]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첫 번째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 장 23 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인류의 첫 사람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모든 사람”을 한 4 가지로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이미 첫째로 죄를 범한 이방 사람들(1:18-32)과 둘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2:1-16)과 셋째로 “유대인”들(2:17-3:8)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매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넷째로 ‘온 인류’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3 장 9-20 절 말씀 중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칭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 장 9 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다 같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한 후(9 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기록된 바”(10 절)]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1) (10-12 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인 구약 성경 시편 14 편 1-3 절과 53 편 1-3 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 14:1-3)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 (시 53:1-3)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2) (롬 3:13 상)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 편 9 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3) (롬 3:13 하) “…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0 편 3 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4) (롬 3: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 편 7 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5) (롬 3:15-17)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9 장 7-8 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6) (롬 3: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6 편 1 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온 인류가 죄인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롬 6:23) 온 인류가 하나님의 칭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 장 9 절에서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19 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원어 헬라어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고(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원어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심판”이란 헬라어 단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로이드 존스). 성경은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재판입니다. 결코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 장 11-15 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11 절).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12 절). “책들이 펴 있고”는 모든 사람들이 책 한 권씩 있을 것입니다(12 절). “또 다른 책”은 우리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입니다(12 절). 모든 사람이 각자 말하고 행하고 마음의 품은 것들 등 다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13 절).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14-15 절).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칭의를 받아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 장 7-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비록 유향 불 못에서는 영원한 형벌이 있지만 하늘 나라에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는 말씀에서 동사 “준비하였으므로”(7 절)는 능동태로서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라는 말씀에서 동사 “허락하셨으니”는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이란 ‘칭의’를 말씀합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혀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5)

[로마서 3 장 21-26 절]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첫 번째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4 번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인 (1) 이방 사람들(롬 1:18-32)과 (2)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판단자들)(2:1-16)과 (3) 유대인들(2:17-3:8)과 (4) 온 인류(3:9-20)가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23 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칭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두 번째인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칭의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 장 21 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란 하나님의 칭의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 장 17 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0 입니다: (문) 의롭다 하심(칭의)이란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 자신이 만들거나 성취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만한 만족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 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창 3:7-8,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21 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을 입히시기 위해선 동물을 잡아 죽였어야 했는데 그 동물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같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4:4). 그리고 그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를 속량, 곧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엡 1:7; 골 1: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주시사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0 장 11-15 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불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우리들, 즉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21:1)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 장 2-7 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스가랴 3 장 1-5 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 개의 환상들 중에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더 이사야 3 장 22 절에 나오는데 거기선 “예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가랴 3 장 4 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 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우리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 장 7-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신부는 칭의를 받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으로서 그것은 칭의를 가리킵니다(참고: 8 절에 나오는 동사는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것을 말씀함). 신부 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데(참고: 7 절의 이 동사는 능동태로서 신부 된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말씀함)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옳은 행실”, 즉 “의로운 행위”(8 절, 현대인의 성경)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행위”란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요일 3:7, 현대인의 성경)이 하는 행위로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2:1)와 같이 의를 행하는 것(6 절)을 말씀합니다.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중 계명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임(마 22:37, 39).

칭의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만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자들 만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칭의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축복에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우리 모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를 행하십시오.

총체적 칭의론 (6)

[로마서 3 장 21-26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첫 번째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4 번 묵상을 했고, 지난 주 수요일 예배 때 두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칭의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자기의 의를 세워가지고 면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 장 3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한 예로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바리새인을 누가복음 18 장 11-12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랍비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많은 세세한 범죄까지 구분한 39 종의 주요 행동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핸드릭슨). 예를 들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안식일에 대한 세척을 이리 많이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 장 8-11 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십계명 중 제 4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랍비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세세한 부분에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39 종이나 주요 행동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그들이 지켜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2 장 1-8 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가지고 먹었는데 여기서 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안식일에 수확을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타작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타작을 범한 것입니다. 또 알곡을 먹는 것은 탈곡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먹는 것은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하는 말라는 것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칙을 만들어서 지키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 장 1-10 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 하는 못 가에서 38 년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병든 자가 병이 더 심해지면 안식일에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 년된 병자를 고쳐 주시므로 그의 병이 나아졌는데 이것은 그들의 보기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8 년된 병자가 병이 나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워 가지고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 장 6 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앞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선행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 장 5 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빌 3:6). 그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 장 10 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것은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지만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십계명 중 10 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출애굽기 20 장 17 절 말씀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는 탐심의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7 장 7-8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우리는 어떨습니까? 우리도 탐심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 장 21 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는” 이전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즉,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 장 18 절에서 3 장 20 절까지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칭의가 필요한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칭의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 외에, 즉 이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한 의로만이 칭의를 얻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의(사람의 선행)나 율법의 의나 칭의에는 아무 도움이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칭의론 (7)

[로마서 3 장 21-26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첫 번째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4 번 묵상을 했고, 두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 수요일 예배 때 로마서 10 장 3, 5 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면서 3 종류의 의가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1) 하나님의 의, (2) 사람의 의(자기-의), 그리고 (3)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가 칭의입니다. 사람의 의(자기-의)는 칭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칭의가 필요해서 자기의 노력으로(선행, 고행, 등등)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입니다[(현대인의 성경)“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묻은 누더기와 같”기 때문임](사 64:6). 요한계시록 21 장 8 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1 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 이들은 오히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8 절). 이 목록을 보면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 장 15 절을 보면 거기에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 성 밖”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21:8)인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2:15). 우리가 이미 묵상한 로마서 3 장 13-14 절을 보면 “그들”인 온 인류(모든 사람들)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온 인류가 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계 21:8; 22:15)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는 결코 칭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 장 5 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현대인의 성경)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 장 6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자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로는 사울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 2 장 10 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것은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지만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십계명 중 10 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 그는 탐심의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7 장 7-8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칭의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 장 21-26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칭의의 주체시요 근원이심. 하나님은 칭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는”(21 절)이란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3 중 강세를 말함). 한국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 헬라어를 보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20 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21 절). 여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에서 “율법 외에”란 율법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관해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노력(사람의 공로나 선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의”란 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났으니”(21 절)란 분명치 않았던 것이 분명해졌다는 의미로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탄생/강생하심)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일서 3 장 8 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독생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탄생하신 것, 인간이 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려

하심으로서 이것은 이미 창세기 3 장 15 절에 예언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 장 16 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 장 20 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자 하나님하신 예수님의 탄생/강생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 장 15 절의 언약대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칭의의 주체이시요 근원이시며 칭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 찬송가 1 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가사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적용해서 칭의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칭의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총체적 칭의론 (8)

[로마서 3 장 19-26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첫 번째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4 번 묵상을 했고, 두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십니다.

로마서 3 장 19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13-14 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로써 천국에 못 들어 갑니다. 요한계시록 21 장 8 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1 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 이들은 오히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8 절). 이 목록을 보면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 장 15 절을 보면 거기에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 성 밖”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21:8)인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2:15). 이들은 칭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칭의를 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

로마서 3 장 20-21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행위(율법을 지킴)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20 절). 여기서 “이제는”(21 절)라는 단어는 3 종류로 강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이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강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2) 이 단어가 원어인 헬라어로는 ‘Nuni’(Nun 이 아니라)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강세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3) 한국 성경에는 “이제는”이지만 원어인 헬라어는 직역하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강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비유로 설명한 것을 보면 큰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이제”이며 또한 캄캄한 어둠 끝에 밝음에 이른 “이제”이며,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제”입니다. “이제”야 말로 큰 기쁨의 폭발이요 큰 감사의 연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기쁜 가운데서 목소리를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죄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 불 못에 들어가야만 했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큰 기쁨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는”이라고 외쳐야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21 절). 왜 “율법 외에”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20 절). 즉, 율법은 칭의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칭의를 받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 장 21 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 장 17 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칭의를 얻음에 있어서는 신약과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얻고 칭의를 얻는 것과 신약에서 구원을 얻고 칭의를 얻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천국 가는 길은 구약과 신약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3 장 22-24 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것입니다(22 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칭의의 근거가 되시고, “믿음”은 칭의를 얻는 방법 또는 수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23 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로마서 1 장 18-20 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 말씀했는데 여기서 칭의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라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의를 주시사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24 절)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는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아 가지고 칭의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 장 1-5 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칭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값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로마서 3 장 25-26 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7)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3:6). 그 죄값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2:17)였습니다. 즉, 범죄한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도 아담으로부터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의 값인 합당한 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롬 3:25).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여기서 그들의 죄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한 것입니다(25 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습니다(26 절).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칭의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무도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칭의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칭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 장 30 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칭의)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총체적 칭의론 (9)

[로마서 3 장 21-26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첫 번째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4 번 묵상을 했고, 두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주체 또는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십니다.

오늘은 ‘칭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 장 21-22 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3 장 21-26 절에서 4 번 나옵니다: (1) (22 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 (2) (24 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 (3) (25 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 (4) (26 절) “...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4 구절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4 번 나오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22 절)와 “믿는 자”(26 절)라는 단어가 2 번 나오고, “속량”이란 단어와 “그의 피”란 단어와 “화목제물”이란 단어와 “의롭다 하려 하심”이란 단어가 각각 1 번씩 나옵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연관 지어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려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만이 칭의의 근거가 되십니다!

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곧 “하나님”이시요(요 1:1)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3 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11 절).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신바 되었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우신바 되신 것입니다(새 찬송가 108 장, “그 어린 주 예수” 1 절). 그 분이 칭의의 근거가 되십니다(롬 3:22). 사도행전 13 장 39 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0 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칭의)이란 무엇인가?” 답입니다: “의롭다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답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 장 38-39 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시고, 보냄을 받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 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에게 순종하여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 26:39, 현대인의 성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빌 2:6-7).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8 절). 히브리서 5 장 8-9 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는 천국에서 고난이 많은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많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체험하셔서 순종함을 배우사(체험적인 순종)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9 절).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란 영생(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영생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칭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1 장 5 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삼상 15:22,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3 장 22 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그저 통로일 뿐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칭의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함을 얻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10)

[로마서 3 장 21-26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 첫 번째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4 번 묵상을 했고, 두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주체”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십니다. 새 찬송가 1 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가사를 이리 좀 수정해서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칭의의 주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주 수요 예배 때에는 우리가 칭의의 근원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새 찬송가 1 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가사를 이리 좀 수정해서 성자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칭의의 근원 예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게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0 문: “의롭다 하심(칭의)이란 무엇인가?” 답: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답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칭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은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대속”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므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 장 24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포로나 노예를 속량하기 위해선 그의 몸 값을 주고 되찾아 와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속량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 장 12 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 장 28 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 장 14 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댓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 장 13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 장 5 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속량(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3 장 25 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25 절). 피는 생명입니다. 매우 값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 장 7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7 절,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전서 1 장 18-19 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구속, 속량,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찬송가 257 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3 절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로마서 3 장 25 절은 “화목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 장 10 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 장 9-10 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죄인”(8 절)인 우리를 원수로 여기셨고, 우리를 대적하셨으며 또한 멸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의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 죄인들을(3:13-14) 의롭다 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칭의의 근거가 되시기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은즉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를 드리면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11)

[로마서 3 장 21-26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주체” 또는 “칭의의 근원”입니다. 칭의의 주체 또는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대요리문답 70)은 칭의의 근거입니다.

오늘도 네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통로/수단/방법”인 ‘믿음’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 장 21-26 절을 보면 “믿음”이란 말씀이 4 번 나옵니다: 22 절: “믿음으로,” “믿는 자”(2 번); 25 절: “믿음으로”(1 번); 26 절: “믿는 자”(1 번). 이 4 번 나오는 “믿음”이란 말씀을 2 가지로 요약하면 “믿음으로”(2 번)와 “믿는 자”(2 번)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2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 장 22 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원로 헬라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문법: 소유격임 -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이 믿음은 사람의 믿음(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 장 3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즉, 사람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야지 사람의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마태복음 7 장 21-23 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 냄, 많은 권능을 행함)을 많이 행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 장 8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입니다: (1 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절)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흑 밤에 흑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 장 25 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속량하시기(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 장 7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없습니다. 새 찬송가 252 장 “나의 죄를 씻기는” 가사입니다: (1 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 절)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 절)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4 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5 절)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베드로전서 1 장 18-19 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죄사함, 속량,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으면 죄사함(속량) 받고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새 찬송가 287 장 “예수 앞에 나오면” 가사입니다: (1 절)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 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3 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늘 “칭의의 통로/수단/방법”인 ‘믿음’ 대해서 2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12)

[로마서 3 장 21-3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주체” 또는 “칭의의 근원”입니다. 칭의의 주체 또는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십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대요리문답 70)은 칭의의 근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네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통로/수단/방법”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늘도 네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통로/수단/방법”인 ‘믿음’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은 칭의의 통로/수단/방법이진 결코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칭의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 장 22-23 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 냄, 많은 권능을 행함)을 많이 행함으로 칭의(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 장 8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새 찬송가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3 절 가사: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3 장 25 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원어 헬라어로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tēs pisteōs (faith/믿음으로) en (in/안에) tō autou (His/그의/예수님의) haimati (blood/피)]인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그의 피 안에 믿음으로’입니다. 이 직역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및 역사하셔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칭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는 성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 장 7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 장 7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없습니다[참고: 새 찬송가 252 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 장 14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댓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 장 9 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 장 5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새 찬송가 268 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가사입니다: (1 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 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 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 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 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 장 19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롬 3:23)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히브리서 9 장 22 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속죄함,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인들이 다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요 19:30, 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칭의의 통로/수단/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칭의를 받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 장 27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 장 8-9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주님 홀로 받게 해야 합니다(새 찬송가 323 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총체적 칭의론 (13)

[로마서 3 장 21-3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방 사람들(1:18-32)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판단자들)(2:1-16)과 유대인들(2:17-3:8)과 온 인류(3:9-20)]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주체” 또는 “칭의의 근원”입니다. 칭의의 주체 또는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십니다. 로마서 3 장 21 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대속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네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통로/방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로마서 3 장 22 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은 로마서 3 장 22 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 장 21-28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하고 소리쳤습니다(21-

22 절, 현대인의 성경). 이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께 구하면 응답 받을 줄 믿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24, 26 절). 이 답변의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면서 차별했듯이 예수님도 그 이방 여자를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녀를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27-28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8 절, 현대인의 성경).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1)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 편 137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요한복음 17 장 25 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 장 28-30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할례 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무할례자들)의 하나님으로서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3)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 편 17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4)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 장 23 절과 32 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라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이 그 죄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떠나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 장 9 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롬 3:22, 현대인의 성경). 새 찬송가 520 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1 절 가사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스러운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나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엡 2:8) 주님께 나아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사(새 찬송가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3 절 가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길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14)

[로마서 3 장 21-3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방 사람들(1:18-32)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판단자들)(2:1-16)과 유대인들(2:17-3:8)과 온 인류(3:9-20)]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주체/근원”입니다. 칭의의 주체 또는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심.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롬 3:2). (3)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대속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4) 네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방편/통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롬 3:22). (5) 다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보편성”입니다. 로마서 3 장 22 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 장 25-26 절 말씀 중심으로 여섯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목적”(1)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다음 주 수요 예배 때에는 “칭의의 목적”(2)에 대해서 묵상할 것임]. 로마서 3 장 25-26 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경말씀은 중요한 말씀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원복음인 창세기 3 장 15 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내가”이신 창세의 근원이 되시며 창(구원)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1 절)으로 가장한 사탄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여자의 후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약 4,000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게하시므로 성취하셨습니다(요 19:30).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음. 뱀(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로새서 2 장 15 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천사인 사탄을 말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행하십니다. 시편 119 편 137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요한복음 17 장 25 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시편 145 편 17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사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심. 또한 성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사랑의 하나님이심).

로마서 3 장 25 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세우셨다’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우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우셨다’는 단어는 ‘공개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성부 하나님께서 공개하셨다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공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부르짖으셨으며 또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공개하지 않으셨는데(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심을 공개하시되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는 것과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게하시사 자신의 의로우심(거룩하심)을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셨습니다(롬 3:25). 하나님은 약 4,000 년을 참으신 것입니다. 범죄했으면 즉시 잡아서 처벌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25 절). 즉,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본체만체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26 절). 언젠가면 바로 “이 때에”로서(26 절) 그 때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때입니다(25 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처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새 찬송가 50 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사입니다: (1 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2 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3 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후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총체적 칭의론 (15)

[로마서 3 장 21-3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원”입니다.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십니다(롬 3:2). (3)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에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4) 네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롬 3:22). (5) 다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보편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22 절). (6) 여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3 장 25-26 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칭의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원복음인 창세기 3 장 15 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칭의의 근원이 되시며 칭의(구원)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약 4,000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게하시므로 성취하셨습니다(요 19:30).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까지 천년이 하루 같고 또한 하루가 천년같이(벧후 3:8) 이렇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롬 3:25).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으로 인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모든 형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칭의의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 장 26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 장 22-23 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귀신을 쫓아 내며” “많은 권능”(예를 들어, 안수기도 하여 병자를 치유하고, 앓은뱅이가 걷고,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고, 등등)을 행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 장 3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 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 장 18 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으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들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롬 5:10).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고후 5:18). 이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해야 합니다(새 찬송가 270 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후렴 가사).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19 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화해, 화평)하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만족하셨습니다. 이사야 53 장 11 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현대인의 성경)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면서 이 문제 많은 죄악 된 세상으로 가서 이 귀한 화목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칭의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통로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16)

[로마서 4 장 1-8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원”입니다.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십니다(롬 3:2). (3)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에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4) 네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롬 3:22). (5) 다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보편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22 절). (6) 여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목적”입니다. 칭의의 이중목적은 (a)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b)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26 절).

오늘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일곱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예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 장 1-8 절 말씀을 보면 구약에 칭의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 장 1-2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그런즉”(1 절)이란 로마서 3 장과 연관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접속사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3:23)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4:1) 그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칭의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으로서(칭의의 필요성) 칭의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칭의의 근거)를 믿는(칭의의 방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께 의롭다 함(칭의)을 받은 이야기가 창세기 15 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 장 1-6 절 말씀입니다: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죄를 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를 2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는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었고[“두려워하지 말라”(1 절)], 두 번째 죄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아브라함의 불신앙)(2-3 절). 요한계시록 21 장 8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자”였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즉,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당시에 약 2 백만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40 년 광야를 거쳐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하므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모세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간구하였을 때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약 3 년 6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조상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참고: 눅 9:29-31). 그렇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로서 칭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칭의를 받은 것은 자신의 “행위로써”가 결코 아니라(그랬으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롬 4:2) 그게 아니라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3 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창세기 15 장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4-6 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2 절)으로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4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4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5 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6 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자로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계 21:8)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므로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 장 4-5 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믿는 자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 장 6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칭의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체적 칭의론 (17)

[로마서 4 장 9-12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원”입니다.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십니다(롬 3:2). (3)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에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4) 네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롬 3:22). (5) 다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보편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22 절). (6) 여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목적”입니다. 칭의의 이중목적은 (a)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b)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26 절). (7) 일곱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예증”입니다. 여기서 “예증”이란 예를 들어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 예배 때 로마서 4 장 1-8 절 말씀 중심으로 전(구약)에 칭의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사도 바울은 로마서 4 장 1-8 절에서 성부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란 “아브라함”과 “다윗”임). 성경에는 “칭의의 예증”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외에도 더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 장 29-31 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칭의의 예증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로 구성돼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의를

받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 중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증언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칭의의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복”(롬 4:9)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9 절, 현대인의 성경).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10 절) 그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3:23) 중에 한 사람이었기에 그도 칭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가 성부 하나님께 칭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4:9). 창세기 15 장 1-3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범한 죄를 2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2 가지란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자”(계 21:8)였을 뿐만 아니라[“두려워하지 말라”(창 15:1)]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 장 2 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계 21:8)였기에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창 15:2). 이 아브라함의 2 가지 죄를 요한계시록 21 장 8 절에 의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절대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칭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사(엡 2:8)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인 “그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창 15:2)]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이삭)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4-5 절)는 말씀을 믿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6 절). 이것이 바로 ‘칭의의 예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칭의의 예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4 장 9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란 접속사는 그 앞에 있는 7-8 절 말씀과 뒤에 나오는 9 절 말씀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9 절)이란 7-8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한 마디로, “이 복”이란 칭의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속량 곧 죄사함”(엡 1:7; 골 1:14; 참고: 신 21:8)의 복입니다. 이 “죄사함”의 복은 최상/최고/최대의 복이요 또한 최장의 복(영원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3 장 29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와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새 찬송가 283 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1 절 가사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로마서 4 장 9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은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나”[(현대인의 성경)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죄사함”의 복, 즉 ‘칭의의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는 칭의를 받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사람의 표징(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시다”](9-10 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 …”이라고 말했습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았을 때는 바로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 세”(창 12:4) 때인 창세기 12 장 2 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가나안으로 가서 한 10 년 즈 살고 있었을 때(그의 나이 85 세)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습시다(15:6). 그리고 이 때부터 한 14 년 후인 그의 나이 “99 세” 때(17: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서(10 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습시다(23 절). 그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 세였습시다(24 절). 즉, 아브라함은 99 세 때 할례를 행했는데 그는 이미 14 년 전인 그의 나이 85 세 때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습시다[(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으므로 할례 받지 못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칭의의 복은 이 세상의 어느 무엇과도 비교 될 수가 없습니다(예.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도 비교가 될 수 없음). 이러한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시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평생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칭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크게 깨달아 알아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18)

[로마서 4 장 9-17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원”입니다.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십니다(롬 3:2). (3)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에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4) 네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롬 3:22). (5) 다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보편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22 절). (6) 여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목적”입니다. 칭의의 이중목적은 (a)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b)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26 절). (7) 일곱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예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칭의의 예를 들어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 장 13-17 절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칭의의 예증”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좀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4 장 13 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칭의를 받은 것)은 “성경”(3 절)인 창세기 15 장 6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이유는 그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예를 들어, 율법을 지키므로) 그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창 15:5; 롬 4:3).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5 세 때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고(창 15:6) 그리고 14 년 후인 그의 나이 99 세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17:1, 10, 23, 24).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고, 칭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고, 칭의를 받은 자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후손”(롬 4:13)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결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13 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란 아브라함의 경우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세상의 상속자”란 이 땅의 기쁨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언약은 진정한 가나안 땅인 하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충만히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 장 14-15 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13 절의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믿음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이지 만일 율법을 지켜 행해야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헛 빈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14 절)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되기 때문입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갈라디아서 3 장 10 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함(칭의,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사[(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갈 3: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출 20:1-17), 모세는 하나님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24:5)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8 절). 여기서 “언약의 피”란 예수님께서 “...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6:28; 막 14:24).

로마서 4 장 16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도 바울은 칭의의 예증인 아브라함이나 그의 (믿음의) 후손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16 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칭의의 예증인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칭의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의를 행하”되(요일 3:10)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2:6)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 39)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롬 8:17)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4:16, 현대인의 성경)인 칭의(구원)를 받은 자들로서 칭의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어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총체적 칭의론 (19)

[로마서 4 장 17-25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원”입니다.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십니다(롬 3:2). (3)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에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4) 네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롬 3:22). (5) 다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보편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22 절). (6) 여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목적”입니다. 칭의의 이중목적은 (a)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b)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26 절). (7) 일곱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예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칭의의 예를 들어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 장 17-25 절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칭의의 예증”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예를 들어, 율법을 지킴으로나 할례를 행함으로나 선을 행함으로나 착한(좋은)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5 장 6 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현대인의 성경)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로마서 4 장 17 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17 절,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4 장 18 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하면, 그의 믿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인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 장 5 절의 약속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롬 4:17, 현대인의 성경)을 믿었습니다[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생각할 수 있음(요 11 장).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천지 창조를 생각할 수 있음(창 1 장)]. 그 결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롬 4:18,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4 장 19 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백 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 세에도 건강했습니다. 그는 다른 데는 다 건강했는데 자식을 낳는 생산의 부분만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창 17:1, 현대인의 성경)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며 '100 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 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17 절, 현대인의 성경). 즉, 아브라함은 자기나 사라나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 장 20 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현대인의 성경)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인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18 절, 현대인의 성경; 창 15:5)라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 장 21 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희미하게 믿은 게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까지 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그는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임).

로마서 4 장 22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 장 8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4 장 23-24 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24 절,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4 장 25 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아까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롬 8:32,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또한 영화를 함께 하셨는데(요 17:4-5)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때가 차매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3 장 15 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현대인의 성경)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총체적 칭의론 (20)

[로마서 5 장 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롬 3:23)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원”입니다. 칭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십니다(롬 3:2). (3) 세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에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4) 네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롬 3:22). (5) 다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보편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22 절). (6) 여섯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목적”입니다. 칭의의 이중목적은 (a)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b)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26 절). (7) 일곱 번째 소주제는, “칭의의 예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칭의의 예를 들어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4:3)

오늘은 로마서 5 장 1 절 말씀 중심으로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8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1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로마서 4 장의 말씀과 5 장의 말씀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 장 말씀 중 4 장 23-25 절

말씀을 다시금 잠깐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약 2,000 여년 전에 칭의의 예증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22-23 절: 참고 3 절).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으로서(24 절) 여기서 “우리”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24 절). 여기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참고: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행전 3 장 15 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셨는데(롬 4:25) 여기서 “내증이 되고”란 말씀은 로마서 8 장 32 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피 흘려 죽으시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롬 5:1).

로마서 3 장 21 절부터 보면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았습니다(22 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았습니다(24 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는데 그 칭의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5:1). 이 의미는 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창 2:17) 선악과를 따 먹어(3:6)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므로 범죄하여(롬 5:12)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므로(창 3:23) 그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롬 5:12)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10 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10 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딤후 2:15)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롬 5:9)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10 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1 절). 고린도후서 5 장 18 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현대인의 성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19 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마 22:37).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39 절).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 이웃과 불화가 없고 원수지간이 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되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들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그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어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게 하시고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주시길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21)

[로마서 5 장 2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9 가지 소주제란 (1) 칭의의 필요성, (2) 칭의의 근원, (3) 칭의의 근거, (4) 칭의의 방편, (5) 칭의의 보편성, (6) 칭의의 목적, (7) 칭의의 예증, 그리고 (8) 칭의의 결과, (9) 칭의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 예배 때 로마서 5 장 1 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결과” 첫 번째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칭의의 결과” (1)]. 오늘은 로마서 5 장 2 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결과” (2)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2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그로”는 5 장 1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더 넓게 적용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모든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받은 사람(우리)들의 결과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2 절). 사실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들이었는데(8, 10 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복음서(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를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 장 33-37 절 말씀입니다: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싯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제 삼시”(25 절)인 “오전 9 시경”(25 절, 현대인의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 육시”(33 절)인 “낮 12 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33 절, 현대인의 성경) “제 구시”(34 절)인 “오후 3 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습니다(34 절, 현대인의 성경)[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임(34 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므로 그 결과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습니다(38 절). 하나로 된 이 성소 휘장으로 인해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므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 돌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롬 5:2).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 먹으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던 은혜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에덴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 장 24 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회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그 성막에는 휘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나누게 하시고, 지성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셨습니다. 인간은 죄 많은 속성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경우에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두게 하셨습니다”(인터넷).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막 15:38).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은 “그(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 10:20).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19 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들로서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롬 3:9-18).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율법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19 절).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줬습니다(20 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21-22 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5:2).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를 믿는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굳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1 절)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롬 8:15; 갈 4:6; 참고: 막 14:36)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고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죄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 따라 용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힘 되어 새 희망을 주시므로 우리가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십니다(새 찬송가 9 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히 4:16).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로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때에 따라 돕는 족한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고난과 역경 등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22)

[로마서 5 장 2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목상하고 있습니다. 그 8 가지 소주제란 (1) 칭의의 필요성, (2) 칭의의 근원, (3) 칭의의 근거, (4) 칭의의 방편, (5) 칭의의 보편성, (6) 칭의의 목적, (7) 칭의의 예증, 그리고 (8) 칭의의 결과, (9) 칭의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 예배 때까지 로마서 5 장 1-2 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미 목상을 했습니다: 칭의의 결과 (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 장 1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의 결과 (2):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 장 2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 오늘은 로마서 5 장 2 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결과” (3)에 대해서 목상하고자 합니다.

칭의의 결과 (3)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 장 2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3-17 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7 장 60 절을 보면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부활)을 믿는(살전 4:14) “우리 살아남은 자들”(17 절)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에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예수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14 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몸을 죽었을 때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은 비록 그들의 죽음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죽음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17 절).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고전 15:51) “...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 그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살전 4:16)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52). 그들의 영혼은 이미 변화를 받았지만(중생) 그들의 몸은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들의 몸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 장 2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를 받는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살전 4:17), 즉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현대인의 성경)](14 절)의 죽은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데리고 오시는 그들의 영혼과 연합되어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17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롬 5:2 하). 비록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약속)하신 것은 100%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사기 13 장 2-3, 14 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여인에게 약속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인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니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약속)은 누구에게 하셨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의 받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강림하시면 먼저 잠든(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은 다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약(약속)을 많이 하셨지만 크게 5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때가 차매 강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 장 4 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2)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 장 15 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5 장 6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3)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4 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 장 6 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22 장 31-3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인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에 비추어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죽은 사람들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으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 장 1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눅 9:51).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40 일 동안 부활을 친히 증거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행 1:3, 9). (5)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 장 14-15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5 가지 약속 중에 이미 4 가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섯째 약속인 예수님의 재림을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456 번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1518 번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56 번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1518 번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장차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임. 신랑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요일 3:2).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계 19:9).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뿐만 아니라 자랑해야 합니다[“즐거워하느니라”(롬 5:2)란 단어는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칭의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 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 가지 비유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1) 첫 번째 “열 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2 절) 신랑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재림)을 “준비한 처녀들”(10 절, 현대인의 성경)이 돼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2, 8 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2)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21, 23 절)라는 칭찬을 받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바로 가서 그것(달란트)으로 장사하여”(16 절) 남기는(16, 17 절) 주님의 종들이 돼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그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26 절)라고 책망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양들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34 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엡 2:10).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결과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23)

[로마서 5 장 3-4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8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의 결과를 3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1) 칭의의 결과 (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롬 5:1). (2) 칭의의 결과 (2):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2 절상). (3) 칭의의 결과 (3):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절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5 장 3-4 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결과 (4)”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3-4 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여기서 “다만 이뿐 아니라”는 로마서 5 장 2 절 하반절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극하다는 찬송도 드립니다(새 찬송가 70 장, “피난처 있으니” 4 절).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압박, 짓누른다, 심한 어려움 등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 장 1 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사모하는/가고 싶은 천국으로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있지 않을 “바다”란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롬 5:2).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롬 5:3). 환난을 당하면서도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칭의자들은

주님을 위해서와 주님의 일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기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 장 29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칭의 자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사도행전 14 장 22 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환난이란 천국가는 여정의 필수 과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야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을 걷기에 거기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겪는 환난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앞서간 신앙인들이 그렇게 환난을 즐거워했습니다. 마태복음 5 장 10-11 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칭의를 받은 자들은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환난을 당할 때도(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환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 장 7 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임(롬 5:3).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배워서 인내자가 되어 합니다.

성경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5:4). 우리가 인내는 거듭할수록 연단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받은 자들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 장 22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나 연단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 장 7 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새 찬송가 450 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 절 가사입니다: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견내지 맙시다” 우리가 연단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5:4).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연단되면 결국은 소망(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김현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분이 우리에게 “영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주위에 한 행성에서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의 사명은 지구에 가서 모래를 운반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성에서 지구까지 가려면 백만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새가 백만 년이 걸려서 지구에 가서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또 다른 백만 년이 걸려서 그 행성으로 옮긴 후 또 다시 백만 년이 걸려서 지구에 가서 모래를 또 다른 백만 년이 걸려서 그 행성으로 옮기는 것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새가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다 행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 그 모든 세월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영원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영원히”를 좀 더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박국 3 장 17-19 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들로서 극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들로서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롬 5:3).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다들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 감옥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는데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환난이 닥칠 줄을 알고도 거기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기뻐해야 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24)

[로마서 5 장 5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8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의 결과를 4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1) 칭의의 결과 (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롬 5:1). (2) 칭의의 결과 (2):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2 절상). (3) 칭의의 결과 (3):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절하). (4) 칭의의 결과 (4):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3 절).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5 장 5 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결과 (5)”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5 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소망”이란 우리가 받아 누릴 하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 장 15 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기업”이 “소망”(롬 5:5)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 16-17 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여기서 “자녀”란 “부르심을 입은 자”(히 9:15)요 성령을 받은 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칭의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롬 5:5).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5 절).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소망으로 인해 “실망”(5 절, 현대인의 성경)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실망하여 자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5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5 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한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우리에겐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로 시작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 장 13 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롬 5:6)]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친구가 아니라)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6 절).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 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다 부어주셨습니다(5:5).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실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소망을 마침내 받아 누리게 우리가 되어 합합니다. 이 소망은 현세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이 소망은 내세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나그네 생활을 우리가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총체적 칭의론 (25)

[로마서 5 장 6-8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8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5 장 6-8 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결과 (6)”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6-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6 절)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란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요 불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에는 경건하지 않는 자(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7 절)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이란 의를 행하는 자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요, 법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은 만한 사람이고 “선인”이란 의로울 뿐만 아니라(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선함과 인자함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불 경건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6 절)에 죽으셨는데 여기서 “연약할 때”란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일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6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불 경건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6 절) 불 경건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차매”(갈 4:4)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 장 4 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로마서 8 장 29-30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선택하신) 그 이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셔서 실행에 옮기심으로 마침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 보좌에 앉아 영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경건치 않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 자식들을 죽음에서 건지고 자신은 죽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큼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족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녀의 자식들을 위해 죽으면 그녀의 몸은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리도 살리려고 한 그녀의 자식들도 비록 그 순간에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지만 그들 또한 언젠가는 죽으므로 그들의 몸은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기까지 영적 죽음(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김)을 맞이하셨고 또한 지옥의 형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 찬송가 304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입니다: (1 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사 하셨네, (3 절)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무리 우주가 크고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여 우주는 적은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쏟아부으셨는데 그 사랑은 그리도 많은 바다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대속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여 그 사랑을 누리므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마 22:37, 39).

총체적 칭의론 (26)

[로마서 5 장 8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8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5 장 8 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결과 (7)”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란 물론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지만 한 마디로 그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칭의를 받기 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칭의를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4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 장 4 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현대인의 성경)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불법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2)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 장 17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마태복음 25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 가지 비유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a) 10 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지혜가 있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b) 달란트 비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들의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c) 양과 염소 비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양)은 선을 행했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들(염소)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선을 행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 장 23 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 장 8-9 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비록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4) 성경은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량에 미치지 못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4 문: 죄란 무엇인가? 답: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십계명 중에 제 1 계명부터 9 계명까지 다 지킨다 할지라도 열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야고보서 2 장 10 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롬 3:23).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기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 갓난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입니다. 시편 51 편 5 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태어 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뱀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롬 5:8). 예수님께서서는 독생자이지만 사람이 되셔서 33 년동안 머리 돌 것이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 장 6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8:32).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5:8). 여기서 ‘확증하다’란 단어는 ‘천거하다’라는 의미로서 로마서 3 장 5 절에서는 “드러나게”라고 번역되었고, 갈라디아서 2 장 18 절에서는 “만드는 것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증”이란 것은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들어내어 증명하시되 확실하고 확고하여 구체적으로 들어내었다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으므로(창 3:6)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므로 영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영적인 죽음).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아담은 930 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육체적인 죽음)(5:5). 그들은 영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우셔서 입혀주셨습니다(3:21). 이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흠으로 돌아간 몸과 천국에서 오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총체적 칭의론 (27)

[로마서 5 장 8-10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주제란 (1) 칭의의 필요성, (2) 칭의의 창시자, (3) 칭의의 근거, (4) 칭의의 방편, (5) 칭의의 보편성, (6) 칭의의 목적, (7) 칭의의 예증, 그리고 (8) 칭의의 결과, (9) 칭의의 확증입니다. 지금 우리는 8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는 12 가지입니다: (1)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 (2)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음, (3)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4) 환난 중에 즐거워함, (5) 소망의 확신을 가짐, (6)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완성된 소망을 이룸, (7)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주심, (8)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 (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함, (10)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음, (11) 미래 구원을 받음, (12)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 이 12 가지 칭의의 결과 중 9 번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함(롬 5:8)과 10 번째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음”(9 절)은 김창세 선교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로마서 5 장 ~8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0-55).

오늘은 칭의의 결과 중 11 번째인 “미래 구원을 받음”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10 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차마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으므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므로 그는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 창세기

6 장 5-7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세상은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사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노아는 창세가 3 장 15 절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의 가족 8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롬 5:10 상)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 장 8-10 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원수 된 우리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 장 18 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롬 5:10) “...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미래 형입니다(미래 구원). 즉, 앞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곧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중생을 얻었고(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과거 구원). 그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미래의 구원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하거나(그 때까지 살아 있는 성도들은) 혹은 부활하여(죽은 성도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 세상에 없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새 찬송가 335 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1 절).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5 장 10 절이 약속하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는 없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크고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평화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앞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새 찬송가 335 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후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 그 평화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28)

[로마서 5 장 8-1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를 목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주제란 (1) 칭의의 필요성, (2) 칭의의 창시자, (3) 칭의의 근거, (4) 칭의의 방편, (5) 칭의의 보편성, (6) 칭의의 목적, (7) 칭의의 예증, 그리고 (8) 칭의의 결과, (9) 칭의의 확증입니다. 지금 우리는 8 번째 소주제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목상해오고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는 12 가지입니다: (1)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 (2)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음, (3)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4) 환난 중에 즐거워함, (5) 소망의 확신을 가짐, (6)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완성된 소망을 이룸, (7)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주심, (8)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 (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함, (10)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음, (11) 미래 구원을 받음, (12)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 오늘은 칭의의 결과 중 마지막 12 번째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에 대해서 목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11 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뿐 아니라”는 로마서 5 장 1-10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칭의의 결과 11 가지뿐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칭의의 결과이자 12 번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였던(10 절)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11 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칭의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크고 놀라우며 최대의 즐거움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기쁨)은 이 세상에 어느 무엇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즐거움(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도 이 즐거움(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기쁨)은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 장 10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영육간에 힘이 납니다. 시편 100 편 1-2 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현대인의 성경)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우리는 기쁨으로(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칭의를 받은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기쁨)으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새 찬송가 434 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가사입니다: (1 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2 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3 절)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후렴) 나 주안에 늘 기쁘다 나 주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총체적 칭의론 (29)

[로마서 5 장 12-21 절]

오늘 본문 로마서 5 장 12-21 절은 칭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칭의의 확증”을 보여줍니다[“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아홉 번째 소주제: (9) 칭의의 확증]. 로마서 5 장 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에(12 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17 절)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구체적이며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 장 12-21 절에서 칭의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칭의의 확증”이란 소주제 아래 로마서 5 장 12-21 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칭의의 확증을 로마서 5 장 12 절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총체적인 칭의론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3 장 23 절에 근거하여 칭의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이방인들(1:18-32)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2:1-16)과 유대인들(2:16-3:8)과 모든 인류(3:9-13)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칭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 장 12-21 절을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한 사람”이란 말이 10 번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12 번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15 절) 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17 절)를 가리킵니다[“마지막 아담”(고전 15:45)]. 두 번째 사람은 범죄한 “한 사람”(롬 5:12)인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가리킵니다[“첫 사람 아담”(고전 15:45)].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첫 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롬 5:12). 다시 말하면,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창 2:9)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17 절)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므로(3:6)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롬 5:12).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유 1:6, 현대인의 성경)인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에(창 3:5)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악한 천사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하므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천사들 세계에는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롬 5:12; 참고: 창 2:17). 악한 천사인 사탄은 범죄함으로 인해 천국에서 쫓겨났고(유 1:6), 아담과 하와도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육신은 죽고 결국 영혼도 영원히 지옥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하)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창세기 14 장입니다. 그 배경이란 “시날 왕 아므라벨”(창 14:1)의 연합군과 “소돔 왕 베라”(2 절)의 연합군과 전쟁에 있었는데 소돔 왕 베라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10 절). 그 결과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을 당했습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아브람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 명을 거느리고 가서 약탈당한 재물을 다시 빼앗아 오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붙잡혀 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 왔습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아브람이 돌아올 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 분의 1 을 멜기세덱에게 나눠줬습니다(히 7:1-2, 4). 히브리서 기자는 “십 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 분의 일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십일조를 받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 분의 1 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9 절)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의 증손인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자기 조상의 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현대인의 성경)](10 절). 레위처럼 우리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아담의 몸 속에 있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롬 5:8)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8 절)는 확신과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삶 속에는 사망이 왕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14 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30)

[로마서 5 장 12-2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란 대주제 아래 로마서 1 장 18 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8 가지 소주제를 이미 묵상했는데 그 8 번째 소주제가 바로 “칭의의 결과”(12 가지)입니다(롬 5:1-11).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 수요 예배 때부터 “칭의의 확증”이라는 아홉 번째 소주제 아래 로마서 5 장 12-21 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주 수요 예배 때 로마서 5 장 12 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첫 번째 칭의의 확증).

오늘은 두 번째 칭의의 확증으로 로마서 5 장 13-14 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은 그 전 절인 로마서 5 장 12 절을 보충 설명하는 말씀으로서 성경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3 절). 여기서 “죄”란 칭의의 반대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14 절) 이 세상에 “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을 대개 2,500 년으로 봅니다. 이 기간 동안 율법은 없었지만 죄는 있었습니다(13 절).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13 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이 지은 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7)는 명령(계명)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은 죄입니다(3:6).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기에 (롬 5:13)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계명)을 어긴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는 것은 율법이 죄를

가르쳐(알려)주는데 율법이 없었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음으로 자신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13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 절). 여기서 “사망”은 “죄의 삯”(6:23) 혹은 “죄의 대가”입니다(23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명령(계명)을 어기므로 죄를 범한 아담의 죄의 대가도 사망일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5:14)에게도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 절). 여기서 “모형”이란 단어는 원어 헬라어(“τύπος”)를 보면 신약성경에 16 번 나옵니다. 그러나 16 번다 “모형”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6 장 17 절에는 “본”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복음 20 장 25 절에는 “자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였는데(롬 5:14)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첫 사람 아담”은 “오실 자”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을 가리킴(고전 15:47, 현대인의 성경)]. 첫 사람 아담과 오실 자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과 비슷한 점은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계명)에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계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빌 2:8). 또한 아담은 죄를 범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롬 5:12), 예수님은 의를 행하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사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21 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칭의를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길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31)

[로마서 5 장 12-2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란 대주제 아래 로마서 1 장 18 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8 가지 소주제를 이미 묵상했고, “칭의의 확증”이라는 아홉 번째 소주제 아래 로마서 5 장 12-21 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 첫 번째 “칭의의 확증”: 로마서 5 장 12 절, (2) 두 번째 “칭의의 확증”: 로마서 5 장 13-14 절. 오늘은 (3) 세 번째 “칭의의 확증”으로 로마서 5 장 15-17 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 장 15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될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 장 12-14 절 내용을 보면 “한 사람”(12 절) “아담의 범죄”(14 절)의 결과로 “사망”(12, 14 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로마서 5 장 15-17 절을 보면 “한 사람”(15 절) 또는 “한 분”(17 절)이신 “예수 그리스도”(15, 17 절)의 순종의 결과로 “생명”(17 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5 장 12-14 절 내용과 15-17 절

내용을 대조한다면 (1) 인류의 두 대표인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고전 14:45)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 (2)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대조, (3) 죄와 의롭다 하심의 대조, (4) 율법과 은혜의 대조, (5) 형벌과 선물(은사)의 대조, 그리고 (6) 사망과 생명의 대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15 절에서 “이 은사”라고 말했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는 “그 범죄”를 말했는데 그 말씨는 “한 사람”(12 절) “아담의 범죄”(14 절)를 말합니다. 즉,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7)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3:6)를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롬 5:15)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12 절). 그런데 사도 바울은 15 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12 절에서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했는데 왜 15 절에 와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15 절에서 “이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한 사람(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대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원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영원히 멸망)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 “생명”(영원한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에 이젠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사망”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5 장 15 절에서 “더욱”이라고 말했는데 그 단어는 ‘더욱더’ 또는 ‘더 많이’ 또는 ‘많이 많이 더욱’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더욱”이란 최대 많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15 절)은 엄청나게(최대로)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3:24)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었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5:16)(칭의)을 얻었습니다. 마치 물을 그릇에 많이 부을 때 넘치듯이 “이 은사” 또는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15 절).

로마서 5 장 16 절 말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여기서 “이 선물”은 15 절에서 이미 말씀한 “이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즉 “이 선물”은 “은사”로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입니다(16 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16 절).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은 “심판”을 통한 “정죄”입니다(16 절). “그러나”(15 절) 이 “은사”(15, 16 절)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입니다(16 절). 여기서 “많은 범죄”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original sin)와 우리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짓는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15 절)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8:15-16).

로마서 5 장 17 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12, 15, 16, 17 절) 아담의 “범죄”(14, 17 절)로 말미암아 “심판”을 통해 “정죄”에 이르고(16 절) “사망”이 아담을 통하여 “왕 노릇” 했습니다(17 절). 어떠한 사람이든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외에는 다 (육신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음(육신의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15, 17 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17 절)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15, 17 절)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칭의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17 절). 요한계시록 22 장 5 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현대인의 성경)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롬 5:15)인 “의롭다 하심”(16 절)(칭의)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 노릇” 할 것입니다(계 22:5).

총체적 칭의론 (32)

[로마서 5 장 12-2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란 대주제 아래 로마서 1 장 18 절부터 5 장 11 절까지 8 가지 소주제를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1) 칭의의 필요성(우리 모두가 칭의가 필요함), (2) 칭의의 근원(성부 하나님), (3) 칭의의 근거(성자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 (4) 칭의의 통로(믿음을 통해서), (5) 칭의의 보편성(모든 믿는 자는 다 칭의를 받음), (6) 칭의의 목적(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하시고자), (7) 칭의의 예증(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증언함), (8) 칭의의 결과[화평을 누리(5:1),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11 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칭의의 확증”(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줌)이라는 아홉 번째 소주제 아래 로마서 5 장 12-21 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 장 8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를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증”이란 단어를 로마서 3 장 5 절에서는 ‘드러내다’,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번역이 됐고, 갈라디아서 2 장 18 절에서는 ‘만들다’라고 번역이 됐으며, 고린도후서 7 장 11 절에서는 ‘나타내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여러 번역들의 의미는 ‘확실하게 드러내 알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고 의인으로 대우해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크고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길 기원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꼭 하나님께 칭의를 받아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 장 12 절을 보면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제일 첫번째로 묵상한 소주제가 바로 “칭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누가 칭의가 필요합니까? 로마서 1 장 18 절로 32 절은 이방인의 죄, 즉 이방인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칭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로마서 1 장 19 절 32 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죄를 알게 되면 칭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칭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2 장 1-16 절을 보면 판단하는 자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칭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2 장 17 절로 3 장 8 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칭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 장 9 절로 18 절까지는 온 인류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칭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3:23) 칭의가 필요한데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2 장 17 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 장 23 절에서도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사망에 이르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우리 몸과 영혼이 갈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한 영원한 죽음(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칭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 장 12 절을 보면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칭의의 필요성을 더 밝혀주고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란 말이 로마서 5 장 12-21 절 한국어 성경을 보면 10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 헬라어로는 12 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 로마서 5 장 12-21 절에서 “한 사람”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5 장 15 절과 17 절 보면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 장 12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창 2:17; 3:6)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3:23).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930 세를 살고 죽었습니다(5:5). 이 육신의 죽음은 결국 “사망”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 20:14). 이 둘째 사망은 곧 “불 못”입니다. 지옥 불 못에서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막 9:48). 이렇게 아담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롬 5:1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 3:21).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칭의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 못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 장 12 절을 다시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아담의 죄가 모든 에게 전가되었기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어 죄를 범하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이 이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까? 히브리서 7 장 1-10 절을 보면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로서(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요 야곱의 아들이 레위임)(10 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을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위가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 절). 그래 가지고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그 아담의 허리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한 그 죄를 우리도 함께 범한(동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인이니까 칭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죽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도 의롭다 칭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총체적 칭의론 (33)

[로마서 5 장 12-21 절]

우리가 지난 주에 로마서 5 장 12 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 시조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몸)도 영과 분리되어 흠으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 못인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께 칭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습니다(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음). 그러므로 아담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 장 13-14 절 말씀을 묵상하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율법 있기 전에” 시기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때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대개 2,500 년쯤의 기간을 말함). 그 2,500 년 기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장자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창 4:8).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중에 6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출 20:13)는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또한 창세기 6 장을 보면 그 때에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창세기 6 장 5 절과 11-12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또한 창세기 18 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는지 창세기 18 장 20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 명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향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 장 1 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인 약 2,500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 없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 장 10 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5:13).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기 아니하였”습니다(13 절). 여기서 “율법이 없었을 때”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를 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율법이 죄를 알려주는데 그 율법이 없었기에 죄를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죄인들이 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 장 20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이 없었기에 그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가득해졌고,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했었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습니다(롬 5:14).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으므로 죽음의 형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이 사망(죽음)이 왕 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아서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우리 인간은 죄 안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에 우리 모두가 다 사망(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롬 5:14). 여기서 “오실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알고 죄를 지었든 모르고 죄를 지었든 죄 많은(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은 이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모형”이란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16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은 16 번 나오는 이 “모형”이란 단어를 다 동일하게 “모형”이라 번역하지 않고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개역판 성경을 보면 “표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뿐만 아니라 “본”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 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자(증언하시고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 장 25 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에 “자국”이란 단어가 바로 로마서 5 장 14 절에는 “모형”이란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모형”이란 같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십니다. 다른 점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사망이 왕 노릇하게 한 사람이지만(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음.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임)(14 절)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17 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 안에 있는 신자들이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꼭 칭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이 왕 노릇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총체적 칭의론 (34)

[로마서 5 장 12-21 절]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란 대주제 아래 로마서 1 장 18 절부터 5 장 11 절까지 8 가지 소주제를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1) 칭의의 필요성(우리 모두가 칭의가 필요함), (2) 칭의의 근원(성부 하나님), (3) 칭의의 근거(성자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 (4) 칭의의 통로(믿음을 통해서), (5) 칭의의 보편성(모든 믿는 자는 다 칭의를 받음), (6) 칭의의 목적(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하시려고), (7) 칭의의 예증(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증언함), (8) 칭의의 결과[화평을 누리(5:1),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11 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칭의의 확증”(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줌)이라는 아홉 번째 소주제 아래 로마서 5 장 12-21 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로마서 5 장 13-14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은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14 절하)라는 말씀도 묵상했었습니다. 즉, 아담은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형인 아담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른 점을 먼저 로마서 5 장 15-17 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점을 18-21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다음 주에 묵상).

오늘은 로마서 5 장 15-17 절 말씀 중심으로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과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 3 가지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15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가리킵니다. 이 은사(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범죄”란 “한 사람의 범죄”로서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한 사람”인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원어 헬라어를 보면 “모든 사람”입니다. 즉, 인류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의 “그 범죄”(한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원어 헬라어를 보면 “모든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쳤습니다.

로마서 5 장 16 절 말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16 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15 절)은 “범죄한 한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16 절)에 이른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인 아담의 “그 범죄”(15 절)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16 절)으로 인해 “정죄”(즉, ‘너는 죄인이다’)였습니다(16 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15 절) “이 선물”(16 절)은 우리의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습니다(16 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범죄 외에도 우리는 죄를 많이 범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로 우리는 죄인이건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칭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 장 17 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현대인의 성경)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인 아담의 “그 범죄”(15 절)로 말미암아 “사망”(죽음)이 “그 한 사람”(17 절) 아담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습니다(17 절). 그러므로 그 “사망”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도 있는 이유는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시 51:5,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죽음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롬 5:15)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16 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되었습니다(17 절).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서 왕 노릇을 할 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부분적으로 누리면 살게 되었기에 죽음이나 사망의 권세와 공포나 죄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악된 일과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 나라의 영생과 평강과 능력 등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 장 5 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현대인의 성경)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칭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의를 받아(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칭의의 축복과 혜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총체적 칭의론 (35)

[로마서 5 장 12-21 절]

오늘은 마지막으로 “총체적 칭의론”이란 대주제 아래 9 가지 소주제 중에 “칭의의 확증”이란 9 번째 소주제 아래 로마서 5 장 18-21 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14 절)인 첫째 아담과 실제로 오실 자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다른 점을 로마서 5 장 15-17 절 말씀 중심으로 3 가지로 이미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같은 점을 로마서 5 장 18-21 절 말씀 중심으로 3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 장 18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범죄”란 인류의 시조인 첫째 아담이 범한 죄로서 그 한 범죄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7 상)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은 것(3:6)을 가리킵니다. 이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즉 첫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온 인류)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같이”(ὡς)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인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참고: 빌 2:8)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롬 5:18).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 장 19 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이란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7 상)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은 것(3:6)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 즉,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참고: 시 51:5)이 “죄인”이 되었고(롬 5:19)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12 절; 6:23 상). 이와 “같이”(ὥστερ) “한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5:19).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첫째 아담에게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18 절)인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습니다(19 절).

로마서 5 장 21 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19 절) 첫째 아담의 “한 범죄”(18 절)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함(21 절). 그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6:23; 참고: 5:12). 그 결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ὥστερ)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21 절). 즉,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21 절). 즉,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면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할 것입니다(계 22:5).

결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롬 1:1)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5 절).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7 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6 절)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7 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16 절)이요 영원하시고(16:26) 지혜로우시고(27 절) 평강의 하나님(20 절)의 복음(1:1)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2 절)의 죽으심과 부활하심(4 절)을 편지로나마 전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3:5)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칭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21-22 절). 우리 모두가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23 절)인 이방 사람들(1:18-32)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2:1-16)과 유대인들(2:17-3:8)과 온 인류(3:9ff)가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3 절)(칭의의 필요성). 칭의의 주체(근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21-26 절; 8:30). 하나님만이 칭의의 주체이시요 근원이시며 칭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3:21-22).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은 칭의의 근거입니다(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0 문).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24 절). 칭의의 통로/수단/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22 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25 절).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22 절)(칭의의 보편성). 칭의의 목적은 두가지입니다(칭의의 이중 목적):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26 절)과 (2)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26 절). 칭의의 예증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4 장).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3 절).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결과는 (1)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5:1)과 (2)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2 절)(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과 (3)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2 절)과 (4)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3 절)과 (5)소망의 확신을 가지는 것(5 절)과 (6)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완성된 소망을 이룸(3-5 절)과 (7)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소망을 주심(5 절)과

(8)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5 절)과 (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8 절)과 (10)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9 절)과 (11) 미래 구원을 받은 것(10 절)과 (12)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11 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에(12 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17 절)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구체적이며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사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21 절). 이렇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8 절)는 확신과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삶 속에는 사망이 왕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14 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부분적으로 누리면 살게 되었기에 죽음이나 사망의 권세와 공포나 죄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음(육신의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15, 17 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17 절)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15, 17 절)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칭의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17 절). 요한계시록 22 장 5 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현대인의 성경)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롬 5:15)인 “의롭다 하심”(16 절)(칭의)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면서 영원토록 “왕 노릇” 할 것입니다(계 22:5).